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로마서 5 주차 (롬 1:24~2:3)
(2017년 1월 29일 - 2017년 2월 4일)
(제5권 5호)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제 5 권-제 5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7 년 1 월 29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라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Jeonghan Lee (얼바인 온누리교회 집사)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6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예배하는가? (주일)

오늘의 본문 (롬1:24~25)

24 그러므로 (Διὸ)

하나님이그들을 넘겨 주셨습니다 (παρέδωκεν αὐτούς ὁ θεός)
그들 마음의 열정 가운데 (ἐν ταῖς ἐπιθυμίαις τῶν καρδιῶν αὐτῶν)
그들 스스로 그들의 몸을 더러움과 불명예스럽게 하도록
(εἰς ἀκαθαρσίαν τοῦ ἀτιμώζεσθαι τὰ σώματα αὐτῶν ἐν αὐτοῖς·)

25

그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맞바꾸었습니다.
(οἵτινες μετέλλαξαν τὴν ἀλήθειαν τοῦ θεοῦ ἐν τῷ ψεύδει)
그리고 피조물을 창조주를 대신하여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καὶ ἐσεβόσθησαν καὶ ἐλάτρευσαν τῇ κτίσει παρὰ τὸν κτίσαντα.)
그(창조주)는 영원까지 찬송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ὅς ἐστιν εὐλογητὸς εἰς τοὺς αἰῶνας, ἀμήν.)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나님은 그들을 마음의 열정대로 자기 몸을 더럽히고 불명예스럽게 하도록 넘겨 주셨다고 한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아마도 많은 이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을 떠올릴 것이다.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거리에 널부러져 있는 취객들, 마약 중독자들, 돈독이 오른 탐욕스러운 사업가들, 부정을 저질러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안심한다. 적어도 자기는 그렇지 않으며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깨끗하고, 도덕적이며,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이다. 아니, 안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타인들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그들과 자신을 차별화하기까지 한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불의와 불경건은 대충 그런 정도다. 하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성경을 이해했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버려야 하는 것이 인간 스스로의 선악 판단 기준이다. 고난에 처한 옴을 찾아온 친구들은 옴의 고난의 원인을 죄에서 찾으려고 그에게 율법적 잣대를 들이댔다. 이에 대해 옴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주장한다. 이 팽팽한 긴장 상태에서 엘리후는 옴과 친구들을 향해 이렇게 외친다.

“너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네 위의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6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네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7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8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네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욥 35:5-8).

인간들은 자신들이 정한 선악 기준이 곧 하나님의 선악 기준과 동일한 것으로 착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각자 눈에 보이는 대로 선악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으려고 애쓴다. 그러나 옴기는 그것에 정면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인간들이 행하는 선과 악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인간들이 범하는 죄는 인간들에게나 해가 될 뿐이고 반대로 인간들의 선한 행위는 인간들이나 의롭게 할 뿐이다. 하나님이 인간들의 행위에서 도대체 무엇을 받으시겠는가? 인간들이 행하는 선악 행위는 하나님의 기준에는 결코 미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 생각에 의롭게 보이는 행위를 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인간의 판단 기준으로는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 온 세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경건한 삶을 살아 온 바리새인보다 훨씬 중한 죄인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다. 우리 역시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으로 사람들을 선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로마서 1장 25절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맞바꾼 사람들에 관해 말하고 있다. 인간들은 늘 선악 문제에 집착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참과 거짓의 문제를 다룬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 한 분뿐이다. 진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집착하고 있는 어떤 도리가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자체다. 그렇기에 진리는 이념이나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실체다. 그가 진리라면 그 외에 인간들이 만들어 내는 모든 것들은 거짓이 된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기에 그분만이 진리인 것이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사람들은 삶을 엉망으로 살아왔거나 혹은 현재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걸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다.

이어지는 성경 말씀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그들은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섬기고 예배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피조물을 창조주의 자리에 올려놓고 신으로 섬긴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하나님으로 착각한다. 도대체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며 그들은 왜 창조주와 우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걸까? 많은 성경 독자들은 우상 숭배가 자기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라고 착각하기 십상이다. 자기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로 낙인찍는다. 그러나 우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모든 걸 아우르는 개념이다. 특히나 로마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쓴 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한 것이다. 그렇기에 우상 숭배 문제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바로 믿는 성도들을 향한 경고임을 유념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주를 대신하여 예배하고 섬기는 피조물은 무엇일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은 절대 그러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것이다. 물론 그들의 주장은 일견 일리가 있다. 하지만 한걸음만 더 들어가면 누구나 예외없이 우상 숭배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쉽게 알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 5:5).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음란함, 깨끗지 못함, 악한 욕망, 과한 탐욕 등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를 우상 숭배로 여겼다. (우리 성경에는 탐심을 우상 숭배로 번역했는데 정확하게는 ‘이 중에 어떤 것이든 다 우상 숭배다’ (ἡς ἐστὶν εἰδωλολατρεία (헤티스 에스티 에이로로라 트레이아))라고 번역하는 게 옳다고 본다.) 결국 우상 숭배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기를 꾸미려고 지나치게 욕망을 갖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는 욕심도 포함된다. 그렇기에 종교적 열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조차 위험할 때가 있다. 우상 숭배는 결과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는 반드시 교만과 타인을 정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타인을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하고 쉽게 정죄하는가? 자신의 삶을 늘 타인과 비교하며 은근히 드러내 자랑하고 싶지는 않은가? 만약 끊임없이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한번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이 믿고 섬기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불명예스런 열정 (월요일)

오늘의 본문 (롬1:26~27)

²⁶ 이것 때문에 (Διὰ τοῦτο)

하나님이 그들을 명예롭지 못한 열정 가운데로 넘겨주셨습니다

(παρέδωκεν αὐτοὺς ὁ θεὸς εἰς πάθη ἀτιμίας)

그들의 여인들도 바꾸었습니다 (αἱ τε γὰρ θήλεια αὐτῶν μετήλλαξαν)

순기능을 역기능으로 (τὴν φυσικὴν χρῆσιν εἰς τὴν παρὰ φύσιν)

²⁷ 그리고 이와같이 (ὁμοίως τε καὶ)

남자들도 여인들과의 순리를 떠남으로 (οἱ ἄρσενες ἀφέντες τὴν φυσικὴν χρῆσιν τῆς θηλείας)

서로 서로를 향해 그들의 정욕을 불태웠습니다 (ἔξεκαύθησαν ἐν τῇ ὀρέξει αὐτῶν εἰς ἀλλήλους)

남자가 남자로 불경스러운 일을 행함으로

(ἄρσενες ἐν ἄρσειν τὴν ἀσχημοσύνην κατεργάζομενοι)

그들이 그들의 행한 일에 대해 받아야 할 보응을 받고 있음에도

(καὶ τὴν ἀντιμισθίαν ἣν ἔδει τῆς πλάνης αὐτῶν ἐν ἑαυτοῖς ἀπολαμβάνοντες)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인간과 하나님이 멀어진 이유는 인간이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인간의 조상 아담이 그랬다. 그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뱀으로 번역된 ‘나 하스’(ψηψ)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같이 되어’라는 말 때문이었다(창3:5참조). 인간들이 하나님 자리에 가고자 시도한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인간이 침해한 것을 의미한다. 선악에 대한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 인간이 그 권한을 넘보는 순간 인간들은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연스레 추구하게 되어 있다. 우상 숭배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유래한다.

‘이것 때문에’(Διὰ τοῦτο)(디아 투우토). 26절은 이렇게 시작한다. 여기서 ‘이것’은 20절~23절 내용을 말한다. 하나님 자리에 엉뚱한 것을 올려 놓고 하나님 대신 그것을 숭배하는 일, 즉 우상 숭배를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이 우상에 매여 사는데도 그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불명예스러운 열정 가운데 넘겨 주셨다. 성경은 인간들이 불명예스런 열정 가운데로 자발적으로 들어갔다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넘겨 주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파라도켄’(παρέδωκεν)이 현재형 시제라는 점이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대부분 현재 진행형으로 번역된다. 즉,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인간들을 그렇게 대하고 계신다는 뜻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넘겨주어 행하게 한 불명예스러운 일들의 대표적인 예로 동성애를 꼽았다. 물론 사도 바울이 정확히 동성애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이 구절은 동성애로 밖에 해석될 여지가 없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들의 여인들도 순기능을 역기능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남자들도 여인들과의 순리를 떠남으로, 남자가 남자로 불경스러운 일을 행함으로,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 받아야 할 보응을 받고 있음에도 서로 서로를 향해 그들의 정욕을 불태웠다”(롬1:26하~27).

필자는 여기서 동성애자들을 비난할 생각이 없다.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죄가 아니어서가 아니다. 동성애는 분명 죄다. 그러나 다른 수많은 죄의 목록 중에 특별히 동성애만 비난받고 돌을 맞아야 할 죄인 건 아니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성경은 커피숍에서 다른 사람을 가십거리로 삼는 것과 동성애를 동일한 죄로 보고 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바꾼 인간들을 스스로의 욕망에 불타도록 넘겨 주셨을까? 사도 바울은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 받아야 할 보응을 받고 있음에도”라고 말하고 있다. 동성애든 무엇이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행하는 모든 일이 죄요, 우상숭배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동성애자들만 비난하려는 의도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들이 동성애를 행하는 그 자체가 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형벌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옳다는 생각이 든다. 필자가 살고 있는 미국은 동성혼이 합법화된 나라다. 합법화 정도가 아니라 동성혼을 차별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처벌할 정도다. 인간들이 만든 법이라는 것이 그렇다. 어제까지는 정상이던 것이 오늘 비정상이 될 수 있고, 오늘 비정상인 것이 내일 정상이 되기도 한다. 오늘날 미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신앙적 양심대로 살다가는 오히려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고, 그 때문에 기독교계 전체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게 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율법을 가지고 의롭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돌직구를 날렸다.

“¹⁷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¹⁸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¹⁹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²⁰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²¹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 하느냐 ²²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 하느냐 ²³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롬2:17-23).

어떤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은 인간이 인간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적이 없다. 그렇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런 자들을 향해 무조건 정죄의 돌을 들 것이 아니라 사랑의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동성애자가 아님에 감사하기보다는 (이는 바리새인들의 태도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무자비한 정죄와 심판의 돌을 던지고 있지는 않은지 각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성경은 인간은 예외없이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타인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자기는 의롭다고 자랑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일은 없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우상 숭배에서 자유롭습니까? 당신에게 가장 큰 우상을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거절된 마음 (화요일)

오늘의 본문 (롬1:28~31)

- 28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상세히 알려하지 않은 것처럼(Καὶ καθὼς οὐκ ἐδοκίμασαν τὸν θεὸν)
그들의 지식으로 갖기 위해 (ἔχειν ἐν ἐπιγνώσει)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거절된 마음가운데 넘겨주셨습니다 (παρέδωκεν αὐτοὺς ὁ θεὸς εἰς ἀδόκιμον νοῦν,
[그 결과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ποιεῖν τὰ μὴ καθήκοντα),
- 29 가득 채우면서 (πεπληρωμένους)
모든 불의, 사악함, 탐욕, 악의 (πάση ἀδικίᾳ πονηρίᾳ πλεονεξίᾳ κακίᾳ,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μεστοὺς φθόνου φόνου ἔριδος δόλου κακοηθείας,
가십 (φιθυριστάς)
- 30 비방, 하나님을 미워함, 무례함 (καταλόλους θεοστυγεῖς ὑβριστάς)
교만, 자랑, 악을 만들어 내는 일 (ὑπερηφάνους ἀλαζόνας, ἐρευρετὰς κακῶν),
부모를 거역함 (γονεῦσιν ἀπειθεῖς),
- 31 몰이해, 언약 파기, 매정함, 무자비함을 (ἀσυνέτους ἀσυνθέτους ἀστόργους ἀνελεήμονας)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나님은 그들을 ‘넘겨 주셨다’ (과라도켄, παρέδωκεν).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세번이나 연달아서 사용하고 있다 (24절, 26절, 28절).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넘겨준 때문이다. 하나님이 방치해 버린 세상을 성경은 흑암의 상태라고 말한다. 빛이 없는 칠흑같은 어두움이다. 바울은 그 어두움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이런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시작되고 만연하게 된 원천은 거절된 마음 때문이다. 거절된 마음이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뜻한다.

인간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노력하지도 않는다. 그와는 반대로 오히려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다다르려고 애를 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지를 생각해 보라. 인간들은 예외없이 하나님처럼 되어 심판하고 정죄하는 하나님 놀이를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 요즈음 향간에 벌어지는 일들만 봐도 그렇다. 특히나 자칭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마저 자신도 모르는 채 하나님 위치에 올라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른다. 인간들은 너무도 자주, 그리고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도용하기를 서슴지 않는다.

하지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게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기준과 인간의 심판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 한다. 다시 말해 실제로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남들을 정죄하면서도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다. 하지만 이는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특징이다.

세상은 더 깨끗한 사람과 덜 깨끗한 사람, 더 의로운 사람과 덜 의로운 사람으로 나누고 따진다. 그래서 성전에 기도하러 간 바리새인이 멀찍이서 기도하는 세리를 보면서 나는 저 세리처럼 살지 않았음을 자랑스러워한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회가 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실존을 깨달은 자들이다. 누구보다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순간 영원한 거룩, 영원한 의를 은혜로 얻게 되었음을 깨닫고 확신하는 자들이다. 확신한다는 말은 자기 의지로 믿음을 스스로에게 주입시키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든든한 반석, 영원 불변의 반석 위세 서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거룩한 교회가 된다. 그와 동시에 추하고 죄 많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확신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떠나 거절된 마음 가운데 넘겨진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불의, 사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가십(남이야기 하는 것), 비방, 하나님을 미워함, 무례, 교만, 자랑, 악을 만들어 내는 일, 불효, 몰이해, 언약 파기, 매정, 무자비함 등을 가득 채우게 된다고 말한다. 그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당연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놓고 볼 때 둘 중 누가 이러한 것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는 자였을까? 바리새인일까? 아니면 세리일까? 먼저, 누가복음의 기록을 살펴 보자.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이렇게 설명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눅 18:11~12).

바리새인은 정말 바르게 살았다. 토색도 하지 않았고, 어떠한 불의도 저지르지 않았다. 당연히 간음과 같은 반사회적인 악은 그 어떤 것도 저지르지 않았다. 세리처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남들을 속이고 부를 사취하지도 않았다. 더 나아가 그는 매우 철저한 신앙 생활을 했다.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십일조도 꼬박꼬박드렸다. 그는 하나님 앞에 거짓을 고한 적이 없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리새인을 의롭다 하지 않으셨다. 그는 여전히 죄인이고 거절된 마음 상태에 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와 인간들이 생각하는 죄의 정의가 완전히 다르다. 인간들은 행위와 그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나 하나님은 행위의 결과보다는 행위의 동기,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신다. 누가복음은 바리새인과 대비되는 세리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눅 18:13).

하나님 앞에서 당당했던 바리새인과는 달리 세리는 자신의 실존을 깨달은 자다. 그렇기에 그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조차 없었다. 이처럼 바울도 로마서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그는 행위 자체의 옳고 그름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 그보다는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근원에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신의 근원적인 실존은 모른 채 온갖 합당치 못한 행동을 하는 이유를 바울은 거절된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마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당신은 어떠한가? 정말 하나님과 연합돼 있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과 연합되면 삶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거절된 마음 (수요일)

오늘의 본문 (롬1:32)

- ³² 그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누구나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하심을 알면서도
(οἴτινες τὸ δικαίωμα τοῦ θεοῦ ἐπιγνόντες ὅτι οἱ τὰ τοιαῦτα πράσσοντες ἄξιοι θανάτου εἰσίν.)
그러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οὐ μόνον αὐτὰ ποιοῦσιν)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 동조했다 (ἀλλὰ καὶ συνευδοκοῦσιν τοῖς πράσσουσιν.)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인간들의 불의과 불경건에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는 모두가 사형으로 귀결된다. 인간 사회에서는 죄의 경중에 따라 형량도 달라진다. 가벼운 죄는 경고나 훈계로도 충분하지만 어떤 죄는 벌금을 내기도 하고, 어떤 죄는 징역을 살기도 한다. 물론 극히 드문 경우지만 사형을 선고받기도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결은 오직 사형뿐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서면 사느냐 죽느냐 두 갈래뿐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예외는 없다. 동성애를 한 사람도 사형이고, 뒤에서 남의 험담을 한 사람도 사형이다. 교만한 사람도 사형이고, 불효를 저지른 사람도 사형이다. 하나님께는 죄의 경중이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잣대로는 죽음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죄의 경중을 따지는 건 무의미한 일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행하는 선으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에 다다르기엔 턱없이 모자란다. 그런데도 이만하면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다. 의와 거룩은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있을 때 우리를 향해 거룩하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다. 그렇기에 인간들끼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간들은 각자의 잣대로 자기들 눈에 보이는대로 판단한다. 사람마다 죄에 대한 기준도 다르고 의에 대한 기준도 다르다. 그 때문에 성도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다툼이 있는 것이다.

복음은 바로 이런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한다. 인간들이 세워놓은 의의 기준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사람들이 각자의 기준으로 남들뿐 아니라 스스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지도 모른다. 물론 그러한 반문이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등등 우리가 이미 죄라고 알고 있는 여러 기준들이 적혀 있다. 그리고 그 율법들은 실제로 인간 사회에서 각자의 행동을 제한한다. 게다가 이러한 성경의 기준들이 사회법으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도 적용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간들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법과 성경의 법이 거의 같기 때문에 사회법을 곧 성경의 법과 동일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어떤 이유로 사람을 죽인 한 살인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살인자는 성경의 법과 사회의 법을 동시에 어긴 셈이다. 그가 저지른 살인은 하나님 앞에서도 큰 죄고 사회에서도 용서받기 어려운 중죄다. 그런데 사회법과 하나님의 법은 그런 살인자를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이 세상의 사회법은 그 살인범을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 보자. 먼저 그 살인범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디든 숨을 것이다. 경찰은 그런 살인범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고 결국에는 체포되어 재판정에 서게 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저지른 살인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긴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거나, 아니면 죄질에 따라서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 설령 운 좋게 복역을 끝내고 출소를 한다고 해도 살인자라는 낙인은 평생을 따라다니며 자신을 괴롭힐 것이다. 그래서 제 아무리 법적 책임에서는 벗어났더라도 평생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거나 소외당하며 살아가게 된다. 세상의 심판은 계속되고 그는 여전히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설령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도 말이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 살인범을 어떻게 다루실까? 한 순간의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 살인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 죄는 당사자에게 엄청난 심적 부담이 될 것이다.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하고, 어디에 있든 불안하고 떨릴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것이다. 결국엔 잡히고 법정에서 서고 감옥에까지 들어간다. 이런 살인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런 그가 어느 날 우연히 복음을 듣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 죽었고 자신의 죄가 모두 사함을 받았다는 복된 소식이다. 하지만 죄의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조금이나마 죄를 씻어보려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이런 저런 선한 일도 해보지만 여전히 자신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중죄인인 것 같다. 그런데 아는가? 하나님은 그를 살인자로 보지 않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용서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마침내 그 살인자는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라는 터에 서게 된다. 그 순간 그를 사로잡고 있던 죄의식은 사라지고 마침내 하나님과 자기가 화목되었음을 알게 된다. 그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롭게 된 것이다.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은 죄인을 다루는 데 있어서 사회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죄를 갚아야 할 의무가 사라졌다고 해서 인간들 사이에 치러야 할 의무까지 없어진 건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저지르는 죄에 일일이 관여하지 않으신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즉시 심판하셔서 병에 걸리게 하거나,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도 자주 죄를 짓겠는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무작정 용서하시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으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심판을 완결하신 것이다. 인간에 대한 판결은 사형 선고로 끝났고 인간의 대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음으로 우리의 사형 집행을 마무리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형 선고와 사형 집행의 전 과정이 곧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형벌이 더는 없음을 알게 된 사람들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갚아야 할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다. 요즘처럼 로마서 1장 32절이 무겁게 다가온 적이 없다. 내가 당해야 할 사형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당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들이 제 정신으로 받기에는 너무도 무겁고 가슴 아픈 이야기인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의 형벌을 면하게 되었습니까? 그 은혜로 인해 당신은 어떤 게 바뀌었나요?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아! (목요일)

오늘의 본문 (롬2:1)

¹ 그러므로 (Διὸ)

당신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ἀναπολόγητος εἶ.)

오! 정죄하는 각 사람들아 (ὦ ἄνθρωπε πᾶς ὁ κρίνων·)

[왜냐하면] 당신들이 남을 정죄하는 그것에 의해 (ἐν ᾧ γὰρ κρίνεις τὸν ἕτερον·)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σεαυτὸν κατακρίνεις·)

[왜냐하면] 정죄하는 당신들이 그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τὰ γὰρ αὐτὰ πράσσεις ὁ κρίνων·)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당신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선언은 다름 아닌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한 것이다. 바울은 세상에서 아무 죄책감없이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교회 밖 사람들을 향해 ‘당신들’이라 지칭하고 있지 않다. 이 편지의 일차 대상은 그 당시의 로마교회 교인들이지만 우리들을 포함해 지금까지 이 로마서를 읽은 모든 사람들이 그 편지의 대상이라면 그 누구도 예외없이 사도 바울이 지칭하는 ‘당신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 나아가 사형에 해당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정죄하는 사람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정확히 말하자면 그릇된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보며 자신의 선악 판단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하나님은 단 한번도 인간들끼리 서로간에 선악을 판단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 판단할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여기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쓴 편지 내용을 인용해보기로 하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약 4:11~12).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의 말은 명령형이다. 명령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걸 의미한다. 그는 비방하는 것을 비방과 판단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비방은 선악 기준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진영 논리에 의한 것이다. 옳고 그르냐의 문제보다는 나와 생각이 같지 않다는 이유로 서로 비판하고 비난한다. 이와는 달리 판단은 옳고 그름, 선과 악에 관한 문제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비판도 판단도 하지 말라고 한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다.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일은 그 자체로 모두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율법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기준과 판단이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한번도 율법의 제정권이나 집행권을 인간에게 이양하신 적이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해야 할 의무만 있지 판단하고 정죄할 권리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의 마지막 수사적 질문은 아무렇지도 않게 남을 가십거리 삼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며 언제든 돌 던질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서의 말씀과 오늘 본문은 일맥상통한다. 사도 바울은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 그 이유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율법에 얽매인 삶을 살면

서 자기들은 물론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까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교회 내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이질적인 종교 행위로 인해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었다.

로마서 14 장은 서로 다른 이질적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내에서 어느 정도의 갈등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음식 문제는 가장 뜨거운 핵심 쟁점이었다. 오랫동안 율법에 따라 철저히 음식을 가려 먹었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를 받아들인 이후에도 음식이나 절기에 관해서는 여전히 옛 관습을 고수했다. 문제는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까지 그것을 강요한 것이다. 게다가 그 문제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까지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음이라”(롬 14:1~3).

유대인들에게 음식 규례는 그들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건 스스로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로 여겨졌다. 다시 말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정하는 행위나 다름없었다. 이에 반해 이방인 그리스도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음식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기까지 했다. 이렇듯 로마 교회 내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저런 문제로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정죄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는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각자가 가진 판단 기준으로 서로 갈등만 키워갔다. 사도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면했다.

“⁴³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⁴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에는 속되니라 ⁴⁵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⁴⁶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⁴⁷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 14:13~17).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 특별히 한국 교회는 술, 담배 문제가 논쟁거리일 때가 많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없는 신자로 간주된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공소권 없음을 선포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 것도 없다. 당신은 혹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라고 봐야 할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교회 내에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한 적이 없습니까? 어떤 근거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성도들을 향해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될까요?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 (금요일)

오늘의 본문 (롬2:2)

²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οἶδαμεν δὲ)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ὅτι τὸ κρίμα τοῦ θεοῦ ἐστίν)
진리를 따라 (κατὰ ἀλήθειαν)
그것들을 행하는 그들에 대하여 (ἐπὶ τοὺς τὰ τοιαῦτα πράσσοντας.)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단순히 용서를 통해 인간과의 화목을 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은 ‘용서’에 관한 것이다. 인간사회에서 용서란 잘못된 것을 없던 일로 덮어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생긴 빛이라 해 봐야 아무런 대가없이 채무 면제를 선언받은 고마움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거저 용서하지 않으신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그 대가는 누군가가 반드시 치러야만 한다. 우리가 거저 믿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라는 선언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다. 문제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심판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며, 스스로 자신의 죄를 책임질 능력이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처형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졌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다. 그런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한 성도들인데 그런 그들이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비판한다면 바로 그 비난과 비판을 근거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기록된 율법이다. 다른 하나는 이방인들의 마음 속에 있는 판단 기준이다. 한글 성경은 그 판단 기준을 ‘양심’이라 번역했다. 헬라어 원어는 ‘수네이데시스’(συνείδησις)인데 이를 직역하면 ‘함께 판단한다’라는 뜻이다.

유대인들에게 내려준 율법이든 이방인의 마음에 있는 양심이든 여기서 통칭하여 모두 ‘율법’이라고 부르고 한다. 율법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그리고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러운지도 판단하게 해 준다. 인간은 누구나 예외없이 자신들만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든 마음에 주어진 양심이든 상관없다. 그 율법은 각자의 행동의 지침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악을 구분하게 된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그 기준에 미달하면 스스로를 정죄하고 죄책감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는 이유도 바로 마음 안에 있는 ‘율법’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는 선을 행하고, 옳은 일을 하며, 정결한 마음을 갖는데 도움을 준다.

문제는 율법이 늘 그렇게 선한 쪽으로만 쓰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인간의 내면에 체화되어 있는 율법은 정죄의 수단이 되기 십상이다. 그 율법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율법은 이미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흥기로 둔갑해 버린다. 율법 그 자체를 만드시고 인간들에게 내려 주신 하나님조차 그 율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셨다. 우리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

으로 삼으시고 그 피로 힘입어 우리를 거룩하다 하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시고 하나님이 받아 주신 사람들을 누군가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죽어 마땅한 자라고 매도하고 있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자다.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체험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를 단순히 이론이나 머리로 이해한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 안에 머무르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자신은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타인은 용서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하나님이 용서하신 자신을 스스로가 용서할 수 없어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두 경우 모두 아직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안에 있지 않는 증표라 할 수 있다.

베드로는 용서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질문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 하오리까?” (마 18:21).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신다.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이라도 할지니라”(마 1:22).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의미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를 꺼내셨다. 그 종은 갚을 것이 전혀 없는 빈털터리였다. 다만 얼마라도 빚을 돌려받으려고 생각한 주인이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그 종은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라며 엎드려 간곡하게 호소했다. 그러자 이를 불쌍하게 본 주인은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그를 석방해 주었다. (마 18:23-27). 여기까지가 구원의 의미를 설명한 부분이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주인의 은혜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된 그는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다. 그는 다짜고짜 그의 멍살을 잡고 자신에게 진 빚을 당장 갚으라고 협박을 했다. 뒷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으니 생략한다. 다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돌아가 보자. 예수님은 용서는 절대로 자신의 권리 포기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 권리 포기 없이 진정한 용서를 체험했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율법으로 판단할 권한을 주신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까지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리를 넘어서는 행위다. 다시말해 월권이다. 인간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나하스(뱀)의 말에 넘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 그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휘둘러댔다. 구원은 인간이 불법적으로 가지고 있던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다시 회수해가는 과정이다. 그렇기에 인간에게는 자신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비판하거나 정죄할 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정죄하고 판단하겠는가? 당신은 어떤가? 혹시라도 당신 마음 속에 자기 자신 또는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쌓아둔 뉘앙스가 있는가? 당신이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여전히 당신 안에 가득하기 때문은 아닌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그 은혜가 당신을 어떻게 바꾸었나요? 당신은 타인을 향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런 삶의 태도를 견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죄의 권능 (토요일)

오늘의 본문 (롬2:3)

³ 당신들은 그것을 생각합니까? (λογίζῃ δὲ τοῦτο,)

오! 그것들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ὦ ἄνθρωπε ὁ κρίνων τοὺς τὰ τοιαῦτα πράσσοντας)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아 (καὶ ποιῶν αὐτά,)

당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다고 [생각합니까?] (ὅτι σὺ ἐκφεύξῃ τὸ κρίμα τοῦ θεοῦ;)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남들을 정죄하고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 해대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간다. 오늘 본문은 연속되는 두 번의 수사적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울의 수사적 질문은 “그것들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한 질문이다. 이들은 자신도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남들을 향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들이다. 흔히 하는 말로 ‘내로남불’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경중은 없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살인죄나 뒤에서 수군수군대며 홍보는 거나 하나님 보시기엔 동일한 죄다. 마찬가지로 동성애와 불효를 같은 비중으로 다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최근 들어 개신교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의 하나는 아마도 동성애일 것이다. 사실 예수님은 수많은 죄인들을 용서하셨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던 셈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놀랍게도 동성애에 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신 적이 없다. 반면에 예수님이 직접 금하신 것이 있다. 바로 이혼 문제다. 예수님은 아주 강한 어조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지니라”(마 19:6)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는 이혼에 대해서는 너무도 관대하다. 성도들의 이혼율이 타종교나 무신론자들의 이혼율보다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심지어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분들이 이혼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이혼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피켓을 들고 광장으로 몰려나가 목소리를 높이며 이혼자들에게 저주를 퍼붓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될 것을 명하셨다. 그 명을 따라 연합된 것이 결혼이라면 그것을 나누는 것은 어찌면 동성애보다도 더 큰 죄가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오늘날의 교회는 동성애에는 가혹하고 이혼에는 관대한 자세를 보인다. 어떤 죄에는 엄격한 심판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다른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넘어간다. 이런 모습은 사실 이중잣대 아닌가? 인간에게 있어 죄는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존재다. 그 죄는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다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이 자기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면 어김없이 스멀스멀 기어나와 그 위력을 발한다. 정죄는 행위나 상태에 대한 최종 판단이다. 그런데 행위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가진 선악 판단 기준이다. 그것이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인식하게 만든다. 성경은 그 선악 판단 기준을 율법이라 부른다. 사도 바울은 죄와 율법과의 관계를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고전 15:55-56).

사도 바울은 율법 → 죄 → 죽음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명쾌하게 한 문장으로 설명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롬 6:23).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 오고 그 때문에 사망이 왔다(롬 5:12). 인간들

은 누구나 죄를 짓고 사망을 경험한다. 하지만 사실 지금까지 인간들의 마음을 사로 잡고 뒤흔드는 것은 사망도 죄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이다.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 어쭙잖은 선악 기준이 인간들의 마음 한가운데 들어와 새겨졌고 그것이 결국엔 인간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

사도 바울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인간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판단하는 근거에 관한 것이다. 그게 바로 율법이고 인간들의 양심이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권함을 침해해서 가져온 선악 판단 기준, 그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자. 한적한 시골에 비포장 도로가 있었다. 그 도로는 왕복 2차선인데 차량 통행이 적어 계속 비포장 상태였다. 차들은 대충 어림잡아 오른쪽 길을 택해서 달렸다. 차뿐만 아니라 시골의 경운기와 자전거도 그 길로 다녔고 소를 몰 때도 그 길로 다녔다. 비포장 도로니 당연히 차선도 없고, 횡단보도도 없었다. 시골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는 것은 전혀 불법이라 할 수 없다. 그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그 도로를 이용했다. 그런데 그 주변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그 도로가 차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정부는 그 도로를 왕복 4차선으로 넓히고 아스팔트로 포장을 했다. 그리고 동네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도 설치했다. 물론 갓길이 있었지만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들로 인해 가축들을 데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은 매우 위험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반드시 횡단보도 표시가 그려진 곳으로만 건너야 했다. 하지만 차가 오지 않을 때에는 예전처럼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물론 이는 교통 법규를 어기는 행위다. 어느 날 운 나쁘게 경찰에게 걸려 교통법규 위반 딱지를 받게 되면 그는 벌금을 내야 했다. 얼마전까지는 맘대로 다니던 길이었는데 길이 포장되고 횡단보도가 생긴 이후부터는 그게 불법이 되었다. 여기서 갑자기 생겨난 횡단보도가 바로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있는 율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율법은 자신도 횡단보도를 이용하게 만들뿐 아니라 타인들을 감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자신이 급해서 그냥 건너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고 남들이 건너면 교통 법규 위반인 셈이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 아닌가?

율법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이 들게 한다. 진정한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다. 그런데 한 번 온 율법에서 헤어나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부단한 훈련이 필요하다. 솔직히 내 안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판단 기준을 어떻게 인간 스스로 없앨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고통을 수반한다. 그런데 율법의 권능에서 점점 벗어날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유와 안식은 그만큼 늘어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향한 죄책감, 타인들을 향한 정죄과 비난의 칼날을 거두어 들일 때 비로소 체험하게 된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지 않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선악 판단 기준이라는 괴물을 무력화해야 한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 안에 있는 율법은 지금까지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그 율법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졌나요? 그 결과 당신은 자신과 타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